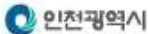
		<b>보 도 자 료</b>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5월 31일(월) 총 6매			
담당 부서	주거재생과	담 당 자	• 공공지원주택팀장 김승민 ☎440-3481 • 담당자 정혜선 ☎440-3482			
사 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2026년까지 우리집 1만호 공급 추진>  
**살고싶은 보금자리 “옥련 우리집 입주해요~!”**  
- 지난해 덕적 우리집에 이은 원도심 첫 영구임대주택 -  
- 플래너, 총괄계획가, 민간 디자이너와 아늑하고 효율적인 공간 설계 -  
- 포스코건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기부로 생활가전 설치 추진 -

무주택 서민 가구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인천형 우리집’이 옥련동에 둥지를 틀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우리집 1만호 공급 사업 중 소규모 신축형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축하하기 위해 31일 입주 축하 행사를 열었다.

‘옥련 우리집’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주택은 총 6층, 연면적 646.03㎡ 규모로 건립돼 영구임대주택 16세대와 연수자활센터가 운영하는 마을 커뮤니티센터가 입주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에 입주한 도서지역 덕적 우리집을 제외하면 원도심에 완성된 첫 번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주거약자가 기존 생활권 내에서 자립, 공동육아, 복지시설 연계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인천형 영구 임대주택인 ‘우리집 1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까지 1만호 공급이 목표다.

시는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자투리 땅 등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신축형 영구 임대주택 모델의 우리집을 추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입주자들이 기존 생활권 내 재정착하여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자립, 공동육아, 복지시설 등 연계할 수 있는 매개체를 함께 공급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은 보금자리로 개발·공급해 영구임대주택 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주거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디자인 역량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주택이지만 내 집과 같은 따뜻한 감성과 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 우리집만의 전용 사이니지 계획과 협소한 공간 활용을 위해 설계부터 도입하는 불박이 생활가전 설치 등 심혈을 기울였다.

‘옥련 우리집’의 경우, 경사가 심해 방치됐던 사유지를 우리집 전담 플래너의 제안 공모를 받아 우리집 총괄계획가와 함께 설계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지하 2층~지상 4층의 설계를 완성했다.

‘옥련 우리집 마을 커뮤니티센터’는 입주민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주방을 공유하며 식생활개선을 위한 요리교실, 카페 등이 운영될 예정이고, 입주민에게는 이불세탁서비스(월 1회)와 식생활 개선을 위한 도시락 서비스(월 2회) 등이 제공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불박이 소형 생활가전을 설치해주는 ‘우리집 공간 채움 프로젝트’를 추진, 지정기부 1호 기업으로 포스코건설이 동참해 옥련 우리집 입주민 16세대 전체에 세탁기 등 불박이 생활가전제품을 설치할 수 있었다.

시는 현재 만석동, 인현동, 만수동, 남촌동, 청천동 지역에 총 93세대를 추진하고 있다.

만석동 우리집에는 이날 오후 우리집 공간 채움 프로젝트 기부금을 전달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의 참여로 생활가전을 설치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옥련 우리집에 입주한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우리집이 누구나 살고싶은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우리집 공간 채움 프로젝트에 1호로 참여해준 포스코건설에도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 발굴과 다양한 형식의 융합 등을 통해 더욱 쾌적한 인천형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은 “인천지역사회와 상생하고 ESG 기반의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더 많은 인천지역 기업들이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15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 동영상은 인천시 웹하드([only.webhard.co.kr](http://only.webhard.co.kr))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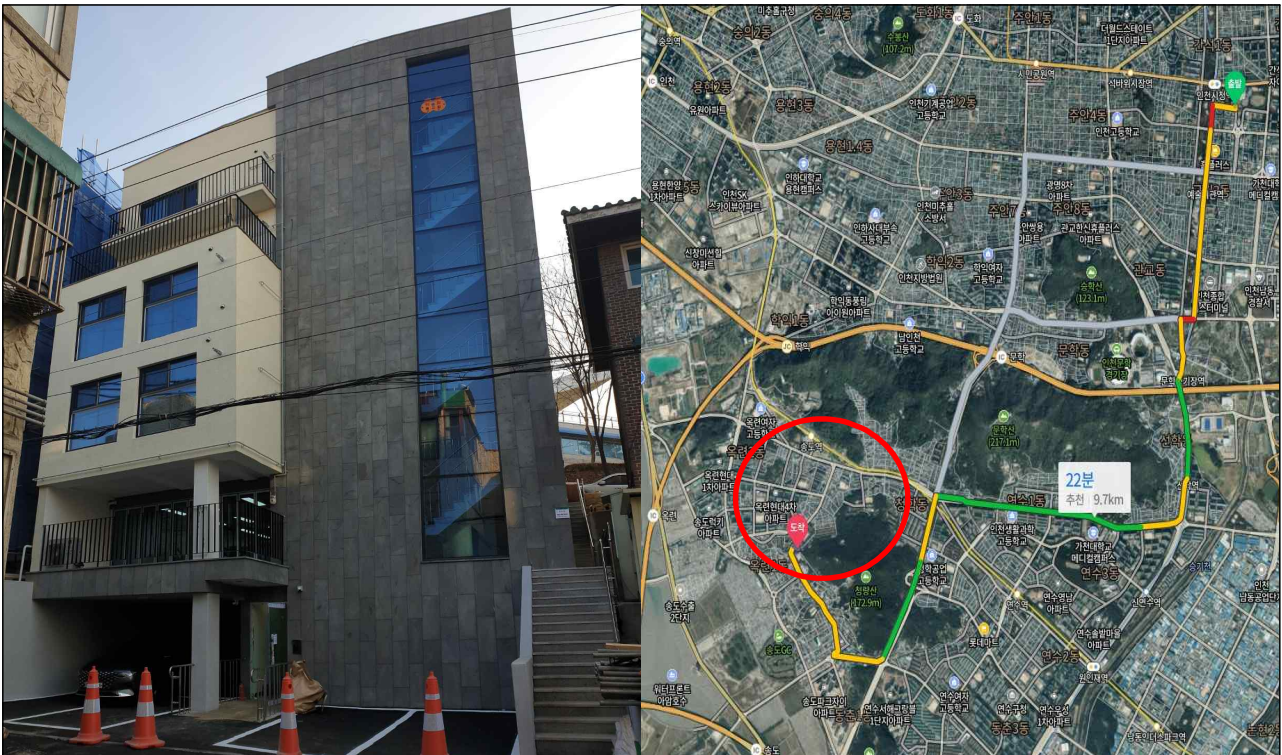
## 『옥련 우리집』 현황

### □ 시설물 개요

○위 치	연수구 옥련동 405-12번지
○토 지	302.0m <sup>2</sup> (시유지 행정재산)
○연 면 적	646.03m <sup>2</sup>
○용 도	영구임대주택(16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규 모	지하2층 / 지상4층
○특화시설	<p>-운 영 자: 연수지역 자활센터</p> <p>-활동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주방을 통한 독거노인 도시락 제공 등</li> </ul> <p>-입주민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불세탁(월1회)</li> <li>• 식생활개선포시락제공(월2회)</li> <li>• 카페 및 공유주방의 일자리 제공(희망자)</li> </ul>



### □ 현황도



## 참고 2

##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 현황

### □ 추진목적

- 주거 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우리집 1만호 공급

⇒ **납비 때문에 어려운 영구임대주택, ‘우리집’으로 공급**

\* **우리집**: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기존 생활권 내에서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자립, 육아, 복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시설을 연계한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 □ 어떻게 지을까

- 재정투입 최소화를 위하여 자투리땅, 국공유지, 공영 주차장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로 추진
- 소형평형, 소규모로 수요자 생활권내에 건설
- 10개년에 걸쳐 맞춤형 임대주택 건설

#### [사업개요]

- ▶ 사 업 명: 우리집 공급 프로젝트
- ▶ 추진기간: 2017. ~ 2026. (10년)
- ▶ 공급/예산: 10,577호/약1조 1,611억 원(국5,346/시491/기타\*5,774)
  - 주택도시기금(국비) 적극 활용, LH·도시공사 사업연계로 시 재정부담 최소화
  - \* 기타: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도시공사·LH부담금, 임대보증금 등
- ▶ 2021년 공급목표: 1,020호

계 (공급세대, 호)	공급유형					비 고
	신축형	정 비 사업형	매입임대			
			공모형	공공리모델링	기존형	
1,020	40	200	100	30	650	



## □ 추진실적

- 2016.12.: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 2017. 9.: 우리집 공급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 2018. 3.: 우리집 총괄계획가 및 플래너 선정·위촉
- 공급현황

구 분		계	공 급 유 형				비 고
			신축형	정비사업형	매 입 형		
					기존형	공모형	
맞춤형 건립사업	2017년	1,327	56	389	882	-	* LH 782호 포함
우리 집 1만호 공급사업	2018년	1,493	86	215	1,123	69	* LH 1,032호 포함
	2019년	2,513	36	-	2,417	60	* LH 2,144호 포함
	2020년	2,644	25	-	2,502	115	* LH 2,144호 포함
	계	7,977	203	604	6,924	244	

## □ 기대효과

-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 및 자립기반 마련
- 주거취약계층 입주대기 단축 및 주거수준 향상
- 민간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